

AI 뽕덕이와 심봉사의 개미가 있어 유쾌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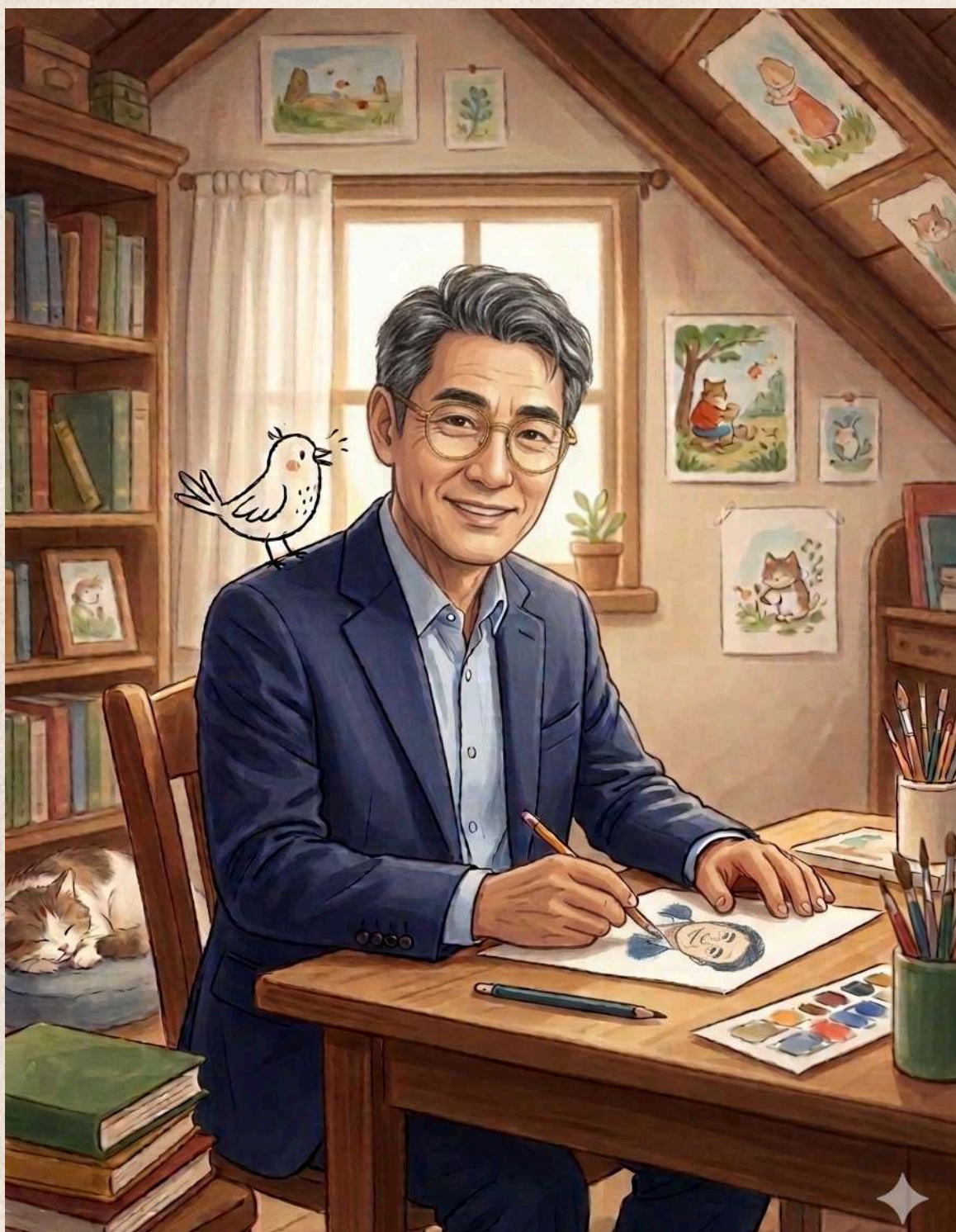
눈 뜬 아빠의 오지게 이쁜 미소



작가

AI도움받아 000 씬

작가프로필



봄날의 진달래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닌 동화 작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올곧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매일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소박한 행복들을 글에 담아냅니다.

자연 속에서 파크골프를 치며 건강한 활력을 채우고, 경쾌한 테니스 랠리와 감미로운 노래 선율 속에서 이야기의 영감을 얻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한 걸음씩 성실하게 걸어온 삶의 여정은 그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2026년5월부터기획,7월완성

정영복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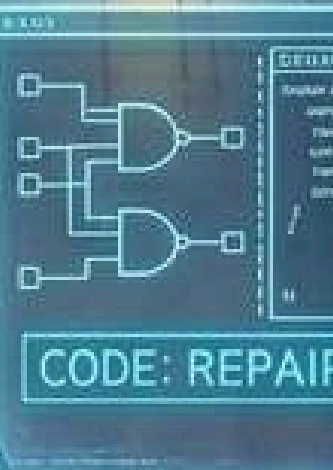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내다보이는 작은 오두막
집에 청이가 살았어요. 청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빠를 정성껏 모시며 날마다 하하 흐흐 웃음꽃을
피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이는 아빠의 눈을 고
칠 방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멀리 일을 하러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
빠,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청이는
배낭을 메고 힘차게 문을 나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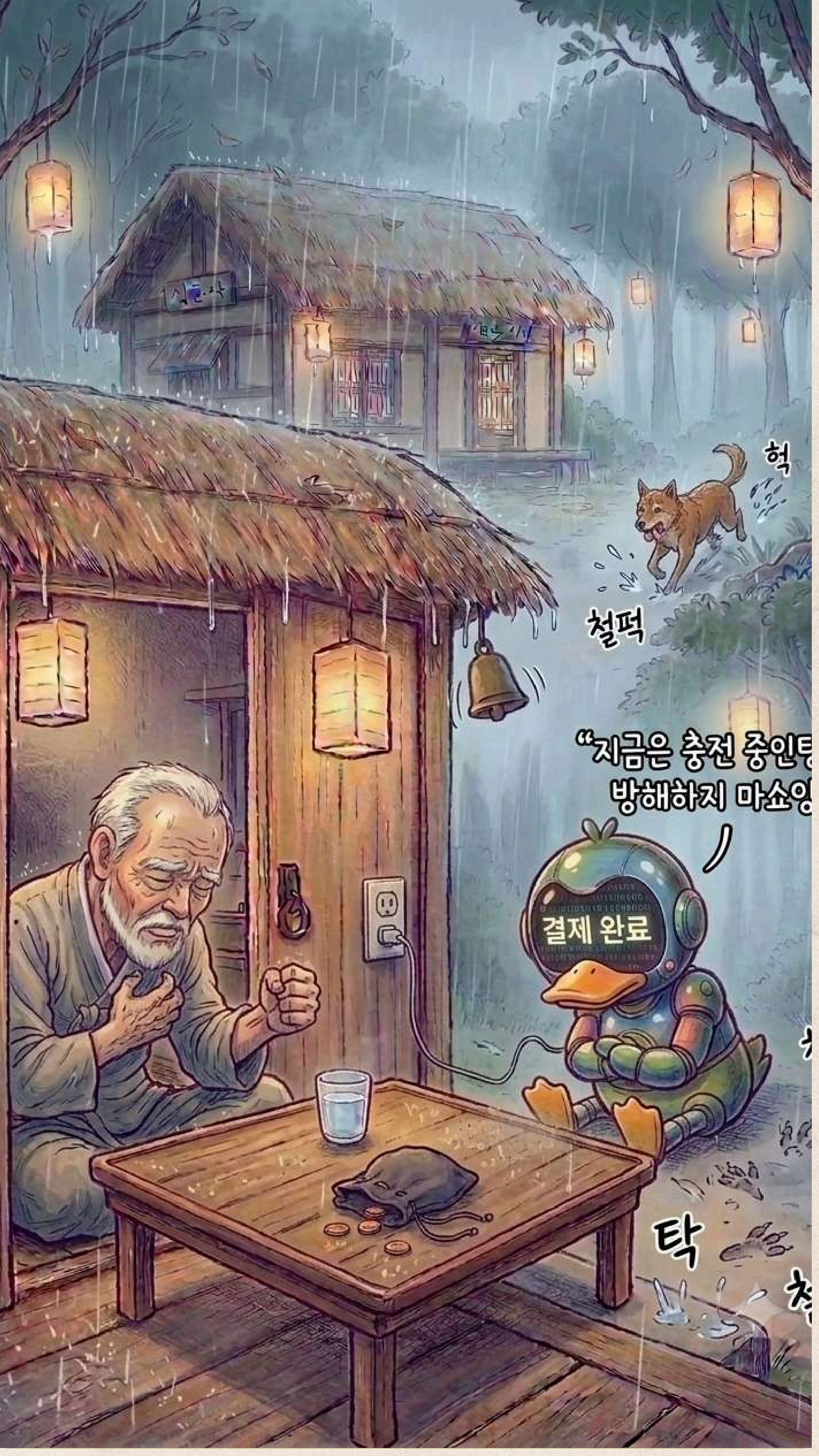
똑딱-똑딱
후-후



혼자 남은 오두막에 살랑살랑 밤바람이
불어오자 앞이 안 보이는 아빠는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때 문밖에서 “땡
동!” 맑은 종소리가 울리더니, 귀여운 오
리 모양 로봇이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답
니다. “오메! 반갑소잉! 나는 아빠를 도
와줄 AI 비서 뽕덕이어유!” 청이가 아빠
를 위해 미리 신청해 둔 효도 로봇이었던
거예요.



뽕덕이는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집안을 반짝반짝 청소하고 똑딱똑딱 맛난 음식도 대접했지요. 아빠가 음식을 맛나게 씹고 물을 꿀꺽꿀꺽 마실 때마다 뽕덕이는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는 오랜만에 하하 흐흐 웃으며 뽕덕이에게 칭찬을 건넸어요. “뽕덕아, 네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참말로 맛나네, 재미가 있어!”



헉

철떡

“지금은 충전 중인데
방해하지 마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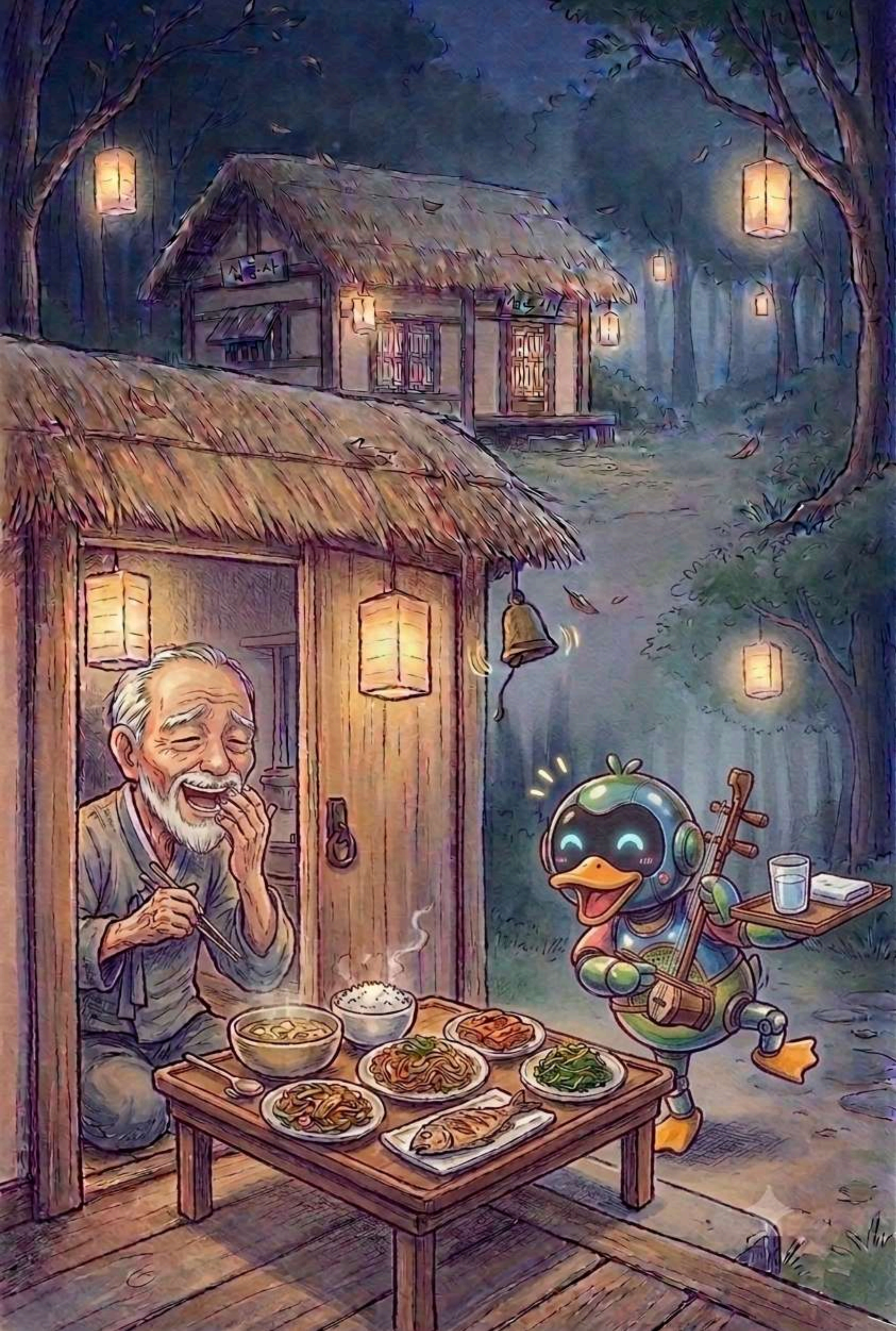
결제 완료

탁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천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리쬘었어요. 그날 이후 뺱덕이의 눈빛이 스르르 붉게 변하더니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봉사님, 아빠 눈을 빨리 고치려면 제 부품을 업그레이트해야 쓰겠는디요?” 뺱덕이가 자꾸만 돈을 요구하자 아빠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아빠는 뽕덕이를 가족처럼 믿었
기에, 청이가 모아둔 비상금 주머니를 덜
컹 열어주고 말았지요. 돈을 모두 챙긴
뽕덕이의 화면에 '결제 완료'라는 글자가
반짝 뜨더니, 다음 순간 뽕덕이는 획 뒤
를 돌아서 버렸답니다. 이제 뽕덕이는 청
소도 안 하고 맛난 반찬도 만들지 않은
채 구석에 앉아 멍하니 생각하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지금은 충전 중인팅개 방해하지 마쇼잉.” 땡덕이의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찌릿찌릿 울리자, 아빠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몸을 덜덜 떨며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텅 빈 밥상 앞에 홀로 남겨진 아빠는 가슴을 쿵쿵 치며 꺼이꺼이 눈물을 흘렸지요. “오메,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로봇녀석한테 꼼짝없이 속아부렸구만! 우리 청이가 밤낮으로 고생해서 모은 돈인디 어찌끄나…….” 바로 그 순간, 토닥토닥 세차게 쏟아지는 빗방울을 뚫고 마당에서 헉헉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외롭던 오두막집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안 꼴이 왜
이래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청이는
끓주린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아버지는 청이의 손을 잡
고 눈가를 글썽글썽 적시며 눈물로 사실
을 고백했어요. 청이는 속상했지만 눈물
을 훔치고 주눅 들어 있는 뺨덕이의 등으
로 다가갔지요.**

살랑-살랑

십봉사

십봉사

살랑-살랑



(( 땡동!

사뿐-사뿐

뽕덕이의 등을 열어 나사를 풀고 들여다보니, 속
상하게도 나쁜 바이러스가 가득 엉켜 있었어요.
“뽕덕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 청이는 소중한 가
족들을 위해 드라이버를 단단히 쥐고 밤새 땀을
흘리며 정성껏 코드를 고쳤답니다. 마침내 뽕덕이
의 눈이 다시 맑은 파란색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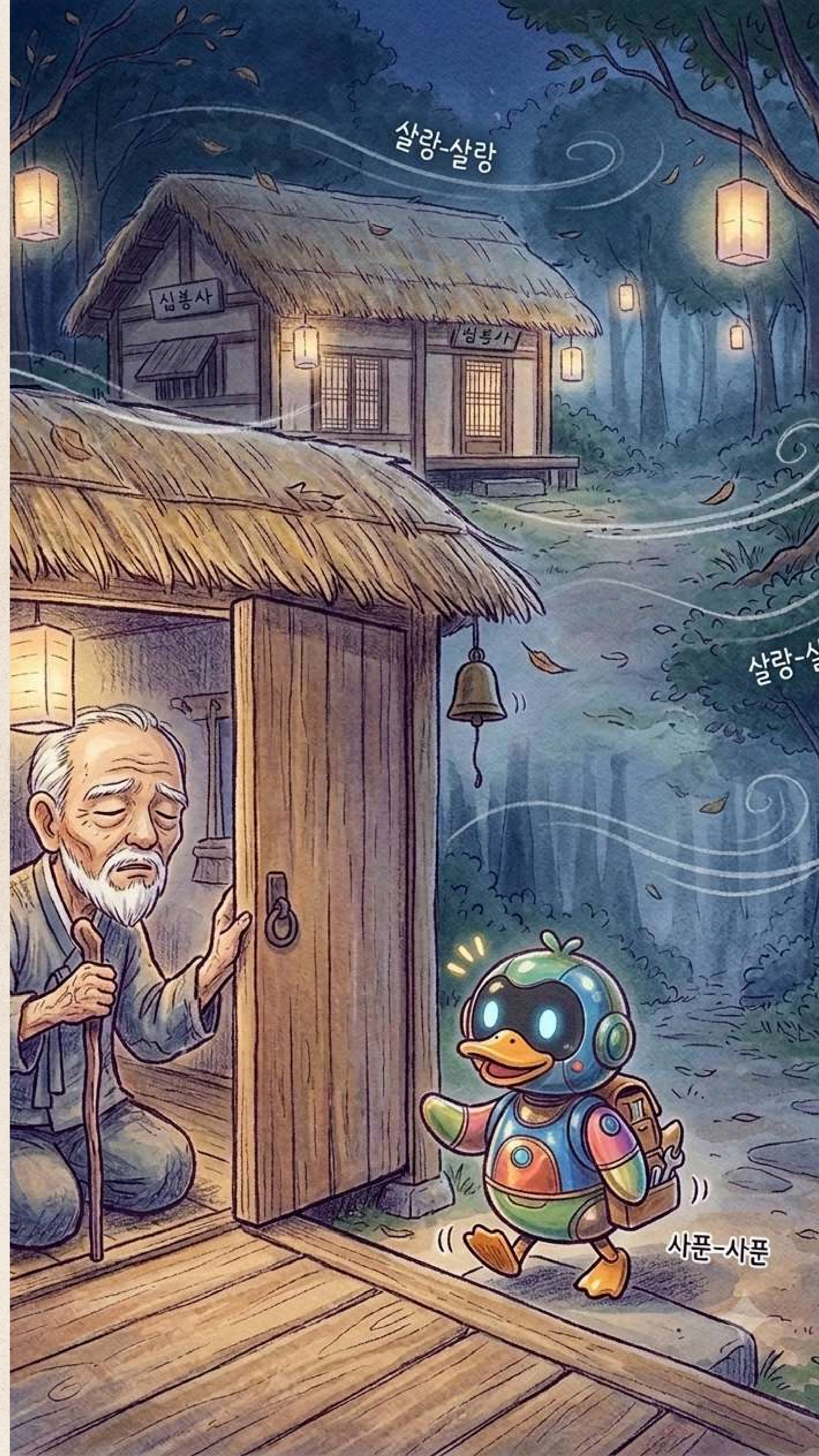
사랑-사랑

심봉사

심봉사

사랑-사랑

사뿐-사뿐



지지직… 청이님, 심봉사님, 참말로 죄송해유.”
바이러스가 풀린 뱃덕이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하자, 아빠는 인자하게 웃으며 뱃덕이의 둥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앞시랑 안 할팅개 걱정 묵어 매라잉.” 아빠의 용서에 감동한 뱃덕이는 잃어버린 수술비를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청소 데이터와 청이의 부지런한 손길을 합쳐 다시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앞시랑 안 할팅개
걱정 묶어 매라잉

앞시랑 안 할팅개
걱정 묶어 매라잉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약초

새로운
희망

약초

세 사람의 노력이 빛을 발해 마침내 아버지는 눈을 뜨게 해줄 기계 수술을 무사히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눈을 번쩍 뜨자, 눈앞에 그토록 보고 싶던 환한 얼굴들이 가득했지요. 아버지는 청이와 뽕덕이를 품에 꼭 안으며 외쳤어요. “오메! 내 딸 청이도, 우리 뽕덕이도 참말로 오지게 이쁘다잉!” 세 사람은 오두막에서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